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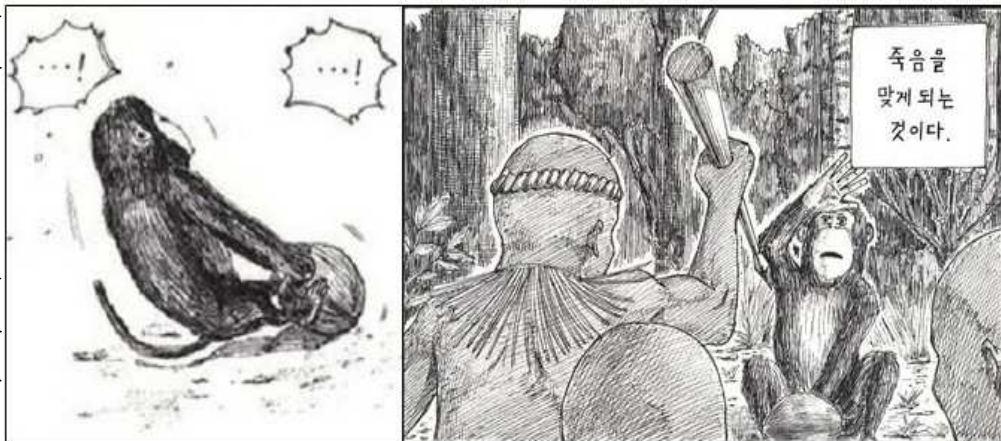
- ☐ 민주노조 사수
- ☐ 임금체계개악 저지
- ☐ 생존권 사수
-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 해고자 원직복직

경평성과급과 임금인상을 포기하자!

작년에 1차 가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회사가 내세웠던 것이 경영평가와 겨우 1.3%의 임금인상이었다. 복지 축소와 퇴직금 삭감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회사가 문을 닫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회사노조들은 앞 다투어 직권조인과 임단협 개악을 서둘렀다. 그런데 결과는 남동 C, 에디슨 대상까지 받은 남부도 C,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D였다. 정상화 중간평가 성과급을 받은 발전회사의 직원들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3개 회사 조합원들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다. 개인당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정부와 회사가 강탈해 갈 때, 노동조합은 회사의 편을 들었고, 조합원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임금인상 3.8%가 미끼이다. 그런데 적용하지도 않은 통상임금을 들먹이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러면서 3.8% 임금인상을 위해 통상임금을 삭감하고, 기본 시간외 10시간도 줄이고, 교대근무는 땀 뺀조와 겹직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단골 메뉴인 '경평과 우리회사만 불이익'을 또다시 떠들어댄다. 작년 한해 그렇게 직원들을 속이고 협박하고서,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정녕 큰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작은 이익을 내려놓을 때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는 특이한 원숭이 사냥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야자열매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작은 과일을 넣어둔다. 원숭이는 야자열매 구멍 속에 손을 넣어 과일을 꺼내려 하지만 손이 빠지지 않는다. 과일을 내려놓으면 손이 빠지겠지만, 욕심 많은 원숭이는 사람이 다가와도 과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원숭이는 사람에게 잡혀 죽고 만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누를 범하지 말자! 임금체계개편-성과차별임금제(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도입을 시도하면서 경영평가점수와 임금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원숭이에게나 할 얘기다. 사실 경영평가나 임금인상은 간부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이미 성과차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간부들은 경영평가에 따라 연봉이 크게 차이난다. 물론 경영진은 연봉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이익이 있다. C, D 등급에 해당하는 간부들의 연봉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인상 밖에 없다. 하지만 간부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단계 가짜정상화 다음에는 '간부의 대량 해고'가 기다리고 있다.

내 생존권을 팔아 질편한 잔치를 벌이려는 자들에게 맞서자! 발전노조 깃발 아래 뭉쳐 1년을 버티면 평생을 지킬 수 있다. 사람답게 노동하고 당당하게 임금을 요구하자!

기재부 앞 천막농성!! 2차 가짜 정상화 분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폭력적, 위법적 공기업 가짜 정상화를 분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농성투쟁을 진행하였다.

4월13일부터 20까지 매일 항의 집회와 선전전을 번갈아 하고 천막농성을 진행 하였다. 발전노조도 가짜 정상화의 주범격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투쟁에 적극 결합하였다.



조직 지침(1) :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투쟁(4.24)

- ☐ 중앙위원 전원은 각 지부 조합원을 인솔하여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다.
- ☐ 최소한 지부 조합원 10% 이상 참가를 목표로 한다.
- ☐ 교대근무 비번 조합원은 전원 참가한다.



조직 지침(2) : 2015 세계 노동절대회(5.1)

☐ **대회 개요** : 전국 조합원 서울 집중

(1) 2015년 5월 1일(금) 14:00 - 전국공공운수노조 사전결의대회(서울시청 광장)

(2) 2015년 5월 1일(금) 15:00 - 2015년 세계노동절대회(서울시청광장)

☐ **대회기조**

- 4.24. 총파업 투쟁과 의제-부문별 집중투쟁의 성과를 모아 수렴하는 정점으로 삼고, 5~6월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및 최저임금 1만원 쟁취투쟁 선포/결의
- 민주노총 '노동자-서민 살리기' 4대 요구 등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정권에 요구와 경고를 천명하고 대중적으로 선포

☐ **4대 요구** :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기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 **발전노조 참가방침** : 지부별 전 조합원 20%이상 참가, 사전결의대회부터 시간 엄수

● 숨가쁜 일정입니다. 『04/11(토) 공공기관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역)』와 『04/18(토) 총파업 선포대회 및 세월호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서울시청광장)』에는 수도권 발전노조 조합원 동지들도 함께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참 모자랍니다. 현재의 투쟁이 패하거나 멈추는 순간, 2단계 가짜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무기를 꺼내들 수 없는 발전노동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동지들을 지지/엄호하고, 그들과 함께 소리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조직과 동지들에게 양보할 때입니다.